

평창군 고향사랑기부제

평창 쌀 들고 국회 방문 홍보

평창군은 오는 11월 3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앞 야외 광장에서 열리는 '2025 평창고령지김장축제 국회 시식회 및 평창 농산물전'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인기 답례품인 평창 쌀을 홍보하기 위해 NH농협 평창군지부와 함께 '농심전심 우리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전개한다. 현장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낸 기부자에게는 선착순으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하는 평창 쌀 2kg을 추가 증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장 축제 체험 할인권을 비롯한 다양한 평창군 답례품을 전시해 많은 국회 방문객과 행사 참가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참여를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평창군은 그동안 답례품 품질 향상과 다양화에 힘써왔으며, 현재 농축수산물, 특산물, 가공품, 서비스상품 등 총 137종의 답례품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지금까지 2억 8,300만 원 규모의 판매 실적을 거두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전재준 군 세정과장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평창고령지김장축제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축제 현장에서 고향사랑기부제에도 참여하고 평창 쌀도 받아가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사랑e음'(www.ilovegohyang.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금을 낼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국 농협 창구를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다.

김민석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11월 지질·생태명소」 정선〈소금강〉선정

수직 절벽과 협곡이 만든 자연의 예술… 늦가을 단풍 명소

인근 화암동굴·화암약수·민동산 등과 함께 즐기는 정선 가을 지질여행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2025년 11월의 지질·생태명소로 정선군의 〈소금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정선 〈소금강〉은 어천(동대천)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규암층 절벽과 협곡·산사면에 넓게 분포한 너털 경(테일러스)이 어우러진 웅장한 계곡 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소금강 일대의 너털경은 장산층 규

암이 오랜 세월 풍화 작용을 거치며 형성된 암석파편 지형으로, 지질·지형학적 가치가 높아 2017년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의 지질명소로 지정됐다.

특히 지방도 421호선을 따라 이어지는 소금강변 드라이브 코스는붉게 경(테일러스)이 어우러진 웅장한 계곡 경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소금강 일대의 너털경은 장산층 규

11월에는 소금강 일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가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정선 탐방객센터'에서는 한국 카르스트 지형·지질 전시관을 중심으로, 실제 동굴 생물과 형성 과정을 직접 보고 배우는 교육·체험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소금강 인근에서는 정선의 대표 가을 축제인 △민동산 은빛 역사축제'(10.2~11.15.)가 열려, 역사발 트레킹, 지역 공연, 체험 버스 등 다채로운 행사가 진행된다. 또한 △화암약수 사운드 워킹 프로그램'(~11.29)에서는 맑은 공기 속에서 자연의 소리를 테마로 한 힐링 트레킹을 즐길 수 있어, 지질 탐방과 함께 체험과 휴식을 모두 누릴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정선 소금강은 지질학적 가치와 자연경관이 어우러진 곳으로, 단풍이 물드는 계절이면 더욱 특별한 매력을 선사한다"며 "깊어가는 가을, 수억 년 지질이 빚어낸 소금강의 아름다움을 직접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원주시, 농진청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원주시는 농촌진흥청이 주관한 '2026년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사업은 농약의 안전한 사용 및 유해 물질 관리 기술을 지원하고, 지역푸드플랜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를 통해 농산물 생산단계와 로컬푸드 농산물의 안전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이 구축될 예정이다.

원주시는 서면 심사를 거쳐 전북 임실군, 전남 보성군 등과 함께 선정됐으며,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유일하게

최종 선정 시군에 이름을 올렸다.

시는 확보한 사업비를 활용해 2027년까지 관내 농산물의 잔류농약(463종) 등 농업 분야 유해 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고, 실험실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상분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로컬푸드와 학교급식 등 지역에서 생산·소비되는 먹거리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품질관리 기반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원주시, 아름다운 화장실 행정안전부 장관상



원주시는 행정안전부와 (사)한국화장실문화협회가 주관한 '2025년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에서 은상인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아름다운 화장실 공모전은 이용자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화장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원주시는 시설의 위생·안전·디자인·접근성 등 종합적인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공모를 위해 시설 상태, 동선, 조명, 안전장치 등을 세밀히 점검한 끝에 소금산 그랜드밸리 통합센터를 최종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사진, 도면, 현황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공모 서류를 작성했으며, 2차 실사 방문 시에는 현장 안내와 평가단 대응을 통해 심사 과정을 원활히 지원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화장실이 단순한 위생 시설이 아니라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개선을 이어가겠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을 실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홍천군, 서석터미널에 버스도착정

보단말기(BIT)·인터넷TV 설치

홍천군(군수 신영재)은 서석터미널에 버스도착정보안내단말기(BIT)와 인터넷TV를 설치하여, 어르신들이 더 편리하고 지루하지 않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 개선은 교통약자인 어르신들의 이동 편의 증진과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BIT 설치로 어르신들은 실시간 버스 도착시간과 노선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기 시간 동안에는 인터넷TV를 통해 뉴스·음악·생활정보 등 다양한 콘텐츠를 시청하며 기다림의 지루함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서석면에 거주하는 한 어르신은 "예전에는 버스가 언제 오는지 몰라 마냥 기다렸는데, 이제는 화면으로 도착시간을 볼 수 있어 너무 편리하다"라며, "TV도 나와서 기다리는 시간이 훨씬 덜 지루하다"라고 만족감을 전했다.

신영재 홍천군수는 "작은 변화이지만 어르신들의 일상 속 불편을 덜어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라며, "앞으로도 교통 소외 지역의 접근성과 편의를 높이기 위한 맞춤형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오는 11월 1일부터 춘천시와 함께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상호 호환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

김민석 기자

‘2025 아디다스 골든챔스 태권도 춘천’ 성황리 개최

전국 73개 도장, 1,200여 명 참가

춘천 첫 개최로 지역경제 활성화 ‘특독’

시범공연·사인화·체험행사로 관람객 호응… 지역경제 활력 기대



태권도를 향한 순수한 함성이 호반체육관을 가득 메웠다.

1일 열린 '2025 아디다스 골든챔스 태권도 춘천'이 전국 유소년 선수들의 뜨거운 열정 속에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전국 73개 도장에서 1,200여 명이 참가했으며, 초등 1학년부터 중등 2학년까지 비전문선수를

대상으로 공인품새(개인·복식·단체전) 경기가 펼쳐졌다.

남자부는 1~2코트, 여자부는 3~5코트에서 동시에 진행돼 참가자 모두가 생생한 현장감을 느꼈다. 관람석은 선수들을 응원하는 학부모와 시민들로 가득 차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특히 트리아디다스 비상 시범단의

역동적인 공연 △탈각 천재'로 불리는 품새 소녀 이주영과 서채원·이진호 선수의 사인화 △엠버서더와 함께한 눈싸움 게임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어져 체육관은 환호와 웃음으로 가득 찼다.

앞서 춘천레저태권도조직위원회는 지난 8월 아디다스 캠프스포츠 코리아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번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왔다.

이번 대회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열리던 '아디다스 골든챔스 태권도' 시리즈를 춘천으로 유치해 처음 개최한 것으로 지역 생활체육 활성화와 유소년 선수들의 참여 저변 확대에 의미를 더하고 있다. 또 가족 단위 방문객 증가로 숙박·외식 등 지역경제 전반에도 활기를 불어넣었다고 시는 평가하고 있다.

육동한 춘천시장은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태권도 꿈나무들이 하나로 어우러져 큰 울림을 만든 뜻깊은 자리였다"며 "이번 대회를 계기로 생활체육 부문에서도 태권도의 열기가 꾸준히 이어져 춘천이 명실상부한 태권도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무릉별유천지 비수기 30% 할인 이벤트



동해시는 무릉별유천지의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비수기 체험시설 이용료 할인 이벤트'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할인행사는 20인 이상 단체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시설, 수상레저 이용요금을 30% 할인해주는 행사로, 현장 대표소에서 단체 방문 여부를 확

인한 후 할인금액이 적용된다.

할인 대상 시설은 ▲체험시설 4종(알파인코스터, 롤러코스터형 집라인, 스카이글라이더, 오프로드 루지)과 ▲수상레저 4종(파티보트(4인승), 문보트(2인승), 오리배(4인승), 페달카약) 등 총 8종으로, 학교·기업·동호회 등 단체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이 예상된다.

무릉별유천지는 무릉계곡 인근에 위치한 복합형 관광시설로, 다양한 체험시설과 수상레저 외에도 어린이 놀이터, 네트 체험장, 전망대, 휴게공간 등 가족 단위 방문객이 머물며 휴식하기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시는 이번 할인 이벤트를 통해 가을 단풍철과 겨울 관광 비수기에도 방문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순기 무릉전략과장은 "무릉별유천지는 사계절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형 관광명소"라며, "이번 단체 할인 행사를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무릉별유천지를 찾아 즐거운 추억을 만들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아침밥이 보약! 아침부터 활약!

아침밥의 힘은 몸이 먼저 알기에
농협이 함께 응원하겠습니다.